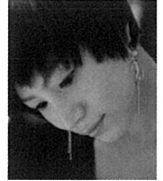


친구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꼬비 이야기



하재영
팅커벨 입양센터 공보팀장, 작가

※이 글은 팅커벨 프로젝트 회원인 지원 씨(가명)와 유기견 꼬비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씨(가명)는 세 마리의 강아지들에게 생김새에 따라 각각 꼬비, 누렁이, 바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꼬비는 눈곱이 자주 끼었고, 누렁이는 이름 그대로 누런 털을 갖고 있었으며, 바둑이는 얼룩무늬의 믹스견이 었거든요. 또 꼬비는 대장 기질이 있었고 누렁이는 사람을 좋아하는 순둥이였고 바둑이는 겁이 많았습니다. 세 강아지는 생김새도, 성격도 전혀 달랐지만 가족처럼 남매처럼 꼭 붙어 다니곤 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세 마리의 떠돌이 개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밥과 물을 챙겨주는 지원 씨가 있어서 굶주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힘겨운 길 생활이나마 자기들끼리 의지하며 살 수 있으니 크게 외롭지도 않았을 거예요.

길에서 떠돌더라도 언제나 그렇게만 지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느 날 이 아이들을 잡아먹으려는 아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꼬비와 누렁이는 용케 도망을 쳤지만, 가장 겁이 많았던 바둑이는 아저씨들의 손에 잡혀 끔찍한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악스러운 손에 잡혀 사지로 끌려갈 때 바둑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바둑이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그 불법적인 도살행위에 어떤 자비도 없었을 거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둑이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자 꼬비와 누렁이에게는 이제 서로밖에 없었어요.

지원 씨는 더 이상 두 강아지를 길 위에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바둑이를 해코지한 사람들이 언제 꼬비를, 누렁이를 끝



팅커벨 프로젝트에는 몇 년째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팅커벨 프로젝트 초창기인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구조되었으니 벌써 3, 4년째 입양 대기 상태인 셈입니다.

팅커벨 프로젝트 입양공고 게시판에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 아이들의 이름은 꼬비, 모정이, 온화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믹스견 꼬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꼬비는 2012년 봄, 두 마리의 강아지들과 함께 울산의 한 동네를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팅커벨 프로젝트 회원인 지원

고 같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집에서 두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던 지원 씨는 꼬비와 누렁이를 모두 집으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일단 한 아이라도 먼저 살리자.’

지원 씨는 꼬비와 누렁이 가운데 누구를 먼저 구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즈음 암컷인 누렁이의 배가 불러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 씨는 임신한 누렁이를 먼저 살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누렁이가 아기를 낳을 동안 잘 돌봐주고 그 후 누렁이와 아기들을 입양 보낸 다음, 꼬비를 구조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꼬비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누렁이가 집에서 안정을 찾는 모습이 기쁜 한편, 지원 씨는 꼬비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렁이와 아기들을 믿을 만한 가정에 입양 보내기까지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떠난 길 위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는 꼬비, 게다가 꼬비를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지원 씨는 누렁이를 성심껏 돌보는 한편 꼬비가 무사히 버텨주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꼬비는 영리하고 눈치가 빠른 강아지이니 구조의 손길이 닿을 때까지 무탈하고 건강하게 살아남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얼마 후 누렁이는 아기를 낳았고 지원 씨는 백방으로 수소문해 아기들을 좋은 가정으로 입양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믹스견인데다 이미 성견인 누렁이는 좀처럼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렵사리 입양자를 찾았지만 ‘내가 꼭 누렁이를 입양할 테니 절대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던 입양자는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입양 예정자의 약속을 믿고 다른 입양 신청자를 거절하기까지 했던 지

원 씨는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원 씨가 누렁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그 무렵, 꼬비의 신변을 위협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해결해보려 했던 지원 씨지만, 더 이상은 꼬비가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지원 씨는 텡커벨 프로젝트에 꼬비에 대한 구조 요청을 했고, 부산에 사는 회원 분의 도움을 받아 꼬비의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여름, 마침내 꼬비는 길고 지난한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정식으로 텡커벨 프로젝트의 보호를 받는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구조 후 꼬비는 텡커벨 프로젝트의 중·대형견들을 보호하는 위탁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양센터에서 지내고 있지 않아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제가 본 꼬비는 무척 영리하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자키보다 체구가 큰 친구들에게도 대장 노릇을 할 만큼 강한 아이지만, 그러면서도 작거나 약한 친구를 배려할 줄 아는 멋진 녀석이에요. 그래서 텡커벨 프로젝트 회원분들은 꼬비를 ‘대장 꼬비’, ‘카리스마 꼬비’라고 부르곤 한답니다.

하지만 중형 믹스견이라는 게 입양의 걸림돌이 되는 걸까요. 길 생활이 끝난 지금도 꼬비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지하던 친구가 무서운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했던 꼬비. 친구들이 떠난 길 위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꼬비. 더 이상 꼬비도 슬픔과 외로움, 기다림과 이별을 익숙하게 여기고 싶지 않겠지요. 꼬비 또한 다른 반려견들처럼 가족들의 사랑과 가정의 행복에 익숙해지고 싶겠지요. 🐾